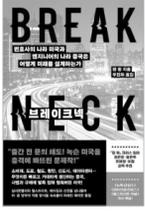


변호사의 나라 미국 vs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

브레이크
단 왕 지음, 우진하 옮김



책에 등장하는 중국 관련 각종 통계는 새삼 놀랍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긴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2위인 스페인보다 10배는 더 길다.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해 건설분야가 호황을 누리던 2018~2019년 중국은 44억 톤의 시멘트를 생산했고 이는 미국이 20세기 생산한 시멘트량과 맞먹는다. 미국에서 급형 전문가를 모은다해도 당장 회의실 하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 서러면 축구장 여러 곳을 채우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이 구축해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 역시 전 세계 국가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중국 기술·산업 분석가 단 왕의 책 '브레이크'는 날카로운 시선, 생생한 사례를 통해 21세기 글로벌 리더십을 둘러싼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전혀 다른 작동 방식을 분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가는 책의 핵심에 닿아 있다. 그는 미국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초' 혁신을 이뤄왔으나 규제와 절차에 갇혀 물리적 역동성을 잃어버린, 핵 기밀 부품조차 만들 수 없는 빈약한 제조 역량과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남는 변호사의 나라'로 규정한다. 반면 중국은 '이공계 출신 권력자들의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 바닥부터 다진 절차식 지식과 압도적 생산력으로 급부상했으나 억압과 통제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는 엔지니어의 나라'로 언급한다.

중국은 청화대에 서 화학공학 전공한 시진핑을 필두로 공학자와 기술자가 권력의 중심에 포진한 나라다.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물질적 혜택을 널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새로운 공학자'를 표방하며 국가의 결정권을 극대화하고 국민 개인의 권리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책은 중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모방'과 관련, 중국 제조업의 진짜 역량을 조명한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제조업에 쏟아부은 결과 중국은 반도체와 항공기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서구 국가를 대부분 따라잡았다. 초고압송전선, 고속철도, 5G통신망 구축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고 금형 장치, 강철 프레스, 로봇팔 같은 자동 생산설비도 앞사나간다. 중국의 '공학국가'의 면모는 내륙 어디든 제조업 단지를 만들었고 트럼프의 압박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기술 독력을 낳았다.

저자는 "경제의 역동성이 숨 막힐 듯한 정치적 억압으로 뒤바뀌기도 하는 현상" 등 숫자와 효율의 논리에 매몰된 중국의 그림자도 보여준다. '중국의 맨해튼'을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은 이공계 출신 지도자들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장점이다. 전국인민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광주일보 자료사진>

꿈꾸었던 금융특구 텐진의 실패,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회실험'이라고 평한 한 자녀 정책과 그에 따른 여아 살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제로 코로나 작전, 청년과 엘리트가 중국을 떠나는 '뚝(濶) 열풍' 등이다.

특히 이 책은 중국이 과거 미국이 거둔 성공 사례를 착실히 따라가는 동안 자국의 장점을 점점 잃어가며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선 미국'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진다.

저자는 "미국과 중국의 진짜 경쟁은 어느 쪽이 더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가장 국민을 생각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다."라고 말한다.

<웅진지식하우스·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패적인 사회의 불쾌함(구마시로 도루 지음, 이정미 옮김)=질서와 청결, 효율을 극단까지 추구하는 사회가 오히려 배제와 낙인, 통제를 강화하는 현실을 짚는다. 노키즈존·노시니어존 확산, 정신과 진단명의 증가, 건강과 위생강박 같은 현상을 통해 '정상성'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개인을 억압하고 불안을 키우는지 분석한다. 쾌적함이라는 미덕 뒤에 숨은 사회적 폭력과 부자유를 조망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질서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지도·2만1000원>

▲산들의 물고기를 찾아서 : 물타에서 온 은퇴유학 일기(황선도 지음)=해양생태학자 황선도가 환갑을 맞아 은퇴한 뒤 지중해의 섬 물타에서 머물며 기록한 '은퇴유학' 체류기. 여학연수와 현지 생활을 바탕으로 낮은 환경에서 다시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을 담았으며, 지중해와 한반도 바다의 생태, 음식 문화,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찰도 함께 풀어낸다.

<씨름·3만원>

▲배고프고 아름다운 동물들(매튜 C. 할트먼 지음, 이유림 옮김)= 한 철학자가 비건이 되기까지의 고민과 선택을 담은 책이다. 무엇을 먹는지 고르는 일상이 환경과 동물, 노동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짚으며 비건을 단번의 결심이 아니라 꾸준



히 이어가는 실천의 과정으로 풀어낸다. 개인적 경험과 유머를 곁들인 가벼운 문체로 식탁 위 선택이 삶의 태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각하게 한다.

<한문화·2만원>

▲그림책으로 마음챙김(이태숙 지음)= 40년간 교단에 선 교사 이태숙이 정년을 앞두고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 기록이다. 삶의 사계절을 따라가며 스무 권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그 책들이 고민과 상처를 어떻게 다독였는지 들려준다. 그림책을 읽으며 감정을 살피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전한다.

< ㈜학교도서관저널·2만1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안데르센의 마지막 선물(하인츠 아니쉬 지음, 마야 카스텔리츠 그림, 윤혜정 옮김)= 미운 오리 새끼와 '인어 공주'를 쓴 안데르센이 가난한 소년 시절을 지나 동화 작가가 되기까지의 그림책으로 힘든 현실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던 안데르센의 마음을 따뜻한 그림과 함께 따라가며, 그의 동화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피카주니어·1만6800원>

▲전설의 가래떡(한라경 지음, 민승지 그림)= 날렵한 속속이, 힘센 탄탄이, 유연한 말랑이, 키 큰 길쭉이는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늘 다투는 가래떡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가래떡 산'에 먼저 도착한 떡에게 신비한 조정을 주겠다는 돌돌할매의

말에 모험을 떠난다. 떡국 바다와 떡볶이 용암, 어묵 호수 같은 길을 지나며 위기를 함께 넘는 동안 가래떡들은 승부보다 더 달콤한 우정을 배워간다.

<보랏빛소어린이·1만7000원>

▲프루스트 클럽(김혜진 지음)=완벽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함께 읽기 위해 모인 십대 독서 모임 '프루스트 클럽'의 이야기를 그린 청소년소설이다. 전학 온 윤오가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과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정과 비밀, 각자의 상처가 드러나며 성장기의 불안과 흔들림을 섬세하게 따라간다.

<바람의아이들·1만7800원>

시조로 다져온 15년...광주문학아카데미 다섯 번째 결실

그리하여, 나는
광주문학아카데미 지음



광주에서 15년 넘게 시조를 매개로 창작을 펼쳐온 시조시인들이 있다. '광주문학아카데미' 동인이 주인공. 시조라는 장르를 매개로 오랫동안 창작을 하고 교류를 이어온 이들이 최근 다섯 번째 시집 '그리하여, 나는'을 펴냈다.

강경화, 고성만, 김강호, 김화정, 박정호, 이송희, 임성규, 정혜숙, 조우리, 최향숙 시인이 주인공들. 이들은 1년여 활동해온 결과물을 저마다 시편으로 묶어냈다.

최향숙 시인은 "한 편의 영화가 관객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듯이 시조 한 편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웃고 우는 감동을 주며 슬픔이라는 밤을 새워 서로

를 치유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그 중심에 '광주문학아카데미'가 굳건히 서 있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시집은 시인들의 다카시 1편씩을 수록한 '특집', 각 시인들의 '이름'을 장으로 엮은 부분으로 구성됐다.

다카시는 시인들의 '돌돌이', '마늘', '일식', '등꽃 너머로', '함께', '갈피', '압력', '그사람', '철거', '켓팝' 등 작품과 사진을 담고 있다. 짧은 시와 이미지가 결합된 다카시는 오늘의 트렌드에 맞는 문학 형식으로, 시인들 외에도 많은 문학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SNS 활동의 일상화 등은 일반인들도 쉽게 다카시에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닥을 굴린다// 티끌처럼 붙는 후회/ 있는 법을 아직 몰라// 지우듯 뜯어낸 인연/ 다시 붙는 생각들"

강경화 시인의 '돌돌이'는 돌돌이라는 사물에 화자의

심상이 투영된 작품이다. 있는 듯 없는 듯 평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물이지만 시인의 새로운 감성과 아이디어가 결합돼 의미있는 작품으로 전이됐다.

흥미로운 것은 화자가 티끌을 '후회'로 은유하는 지점이다. 일상이 그렇듯 사람들은 티끌 같은 후회를 달고 산다. '있는 법을 몰라' 자주 털어내고 지워내려 하지만 그럴수록 달라붙는 게 후회라는 티끌이다.

각각의 시인들의 이름을 장으로 내걸고 게재된 작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금까지 펼쳐온 시세계가 다르듯 저마다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목소리와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오랜 시간 시조를 붙들고 정진해온 시간들이 응축돼 있음을 알게 된다.

시인인 김경 문학평론가는 "이들이 보여주는 질서와 자유, 균제와 파격, 전통과 현대라는 대응쌍의 어느 한 축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 사이의 미학이 곧 우리 현대 시조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다"고 평한다.

<다인숲·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www.getbolworldheritage.org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한계 (㎡)	유산지역 (㎡)	완충구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 갯벌 위의 수채화
- 새들의 휴식처인 사위와 일반서식지
- 갯벌 위에 솟아 있는 무희, 사위
- 일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흥도요
-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층
-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 갯벌로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쫓겨 싸움, 열날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철새이동
- 철새의 먹이활동
- 서식굴
-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 쫓겨 싸움
- 갯벌의 청소부 업날개
- 염생식물의 역할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애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애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